

교환학생 보고서

소속전공	소재디자인 공학과	학 번	201**394	성 명	김현식
주 소		휴대전화		메일주소	
파견국가	슬로바키아	파견대학	슬로바키아 공과대학교 (STU)	파견학기	16년 1학기
소요경비	약 850만원 (비행기값, 거주허가증 받는 비용, 생활용품, 기숙사비, 용돈, 여행비 등)				
주거	STU 자체 기숙사 (캠퍼스 외부에 위치해있으며, 기숙사 앞 정류장에서 트램을 타고 약 10분정도 가서 STU 정류장에 하차) 브라티슬라바에 캠퍼스가 약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, 다른 캠퍼스마다 근처에 기숙사가 있다. 본인이 다녔던 캠퍼스가 주 캠퍼스라서, 비교적 많은 전공이 모여있고 주변에 대학로도 나름 가지고 있다. 기숙사 길 건너편에는 Lidl이라는 큰 대형마트가 있어 장보거나 필요물품을 사기엔 안성맞춤이다. 그 옆엔 바로 편의점, 맥도날드도 위치해있다. 기숙사가 조금 낡았지만 방 내부는 룸메이트에 따라서 쾌적하고 넓은 편이다.				
룸메이트	1인실이 있고, 2인실이 있는데 처음에 기숙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1인실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으면 2인실로 자동 배치. 본인의 경우에는 중동아시아 예멘에서 온 친구였는데, 방에서 흡연을 하고 식사를 하고 치우지 않는 등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았다. 2인실의 장점은 대화를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.				
기숙사 내 한국인	본인같은 경우에는 총 세 명이 슬로바키아로 파견이 됐는데, 한 명은 다른 캠퍼스라서 슬로바키아에서 1번 만났다. 그리고 남은 한명과 같은 기숙사였는데, 파견기간동안 거의 함께하지 않았다. 그 외 기타 한국인은 대사관에서 말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.				
파견대학 정보	학교 이름만큼 거창한 학교는 아니지만, 교수님들 및 석사,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. 교환학생에게 많이 열린 학교도 아니었지만, 교수님 개개인만큼은 교환학생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. 학교 캠퍼스가 따로 있지는 않고 단과대별로 건물이 모여있지만 하는 정도이다. 건물마다 식당도 있다. 하지만 대부분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직원, 교수님들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.				
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	국제 교류 부서만큼은 정말 굉장히 미약하다. 각 단과대학교 별로 국제교류부서까지는 아니고 더 작은 공간에 교환학생을 보조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있다. 심지어 우리 단과대학 코디네이터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. 그래서 본인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다른 단과대 코디네이터에게 가서 거주허가증 및 입학허가서 등을 받는 일을 진행했다.				
주말 및 여가활동	사실, 처음 슬로바키아로 입국할 때 ESN이 있는지도 몰랐고, 초청도 받지 못하여 모임 등에 참가하지 못하고 정보도 하나도 없었다. 그래서 첫 달은 정말 심심하게 보냈었고, 두 번째 달부터 기숙사 친구들과 놀러다니기 시작했다. 보통 주말에는 타지로 여행을 가고, 색다른 경험을 했다. 여가활동으로는 친구들과 주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오곤 했다. 그리고 파티가 열리면 파티는 항상 꼭 참여를 했다.				
	본인에게는 멘토가 있었는데, 멘토가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다. 그래서 정말				

멘토 또는 교류도우미	기본적인 기숙사 입사, 수업 진행 방식, 입학 등록 방식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진행은 꼭 도와주었다. 하지만 기타 여가활동 등을 도와주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. 사실 본인은 함께 친하게 지내고 가끔은 함께 밥도 먹고 하는 사이를 바랬던 것 같았다.
전공	Faculty of chemical and food technology라는 단과대에서 내 전공과 같은 섬유를 전공했다. 전공 이론 수업 3과목과 실험 수업 1과목, 총 4개의 전공과목을 들었다. 교수님들은 매우 친절하셨고,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셨다. 다른 지역에 있는 실험실도 구경시켜주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.
수업 스케줄	많이 단조로웠다. 보통 한 수업당 2시간정도를 수업하셨는데 일주일에 3일정도 학교를 갔다. 사실 우리 전공에는 내가 듣는 수업에 교환학생이 본인밖에 없어서 모든 이론 수업은 1:1로 진행이 됐다. 따라서 수업시간이 매우 유동적이었고 나에게는 굉장히 편했다. 또한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.
학생할인 관련	학생할인은 박물관 등 여러 문화 활동, 버스, 기차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. 본인은 유레일패스를 끊지 않고 거의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유레일 패스는 잘 모르겠다. 하지만 버스는 확실히 할인을 받을 수 있다.
ISIC카드 활용	ISIC카드로 위에서 말한 박물관, 극장, 버스 및 대중교통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. 나는 학교에서 받은 학생증을 이용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만들어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.
영어공부	무조건 노력해야한다. 노력안하고 먼저 다가와주길 바라면 큰 오산이다. 나는 매일 English grammar in use 책을 사가서 문법과 회화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매일 만나서 놀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.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싶다.
여행	돈이 정말 많지 않은 이상 학기 중에 여행을 많이 다니긴 어렵다고 생각했다. 학기 중에는 1달에 한 국가를 다녔다. 그리고 학기 마치고 한달동안 약 8개국을 돌아다녔다.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,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다 등의 말은 다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. 본인이 본인 자신을 믿고 잘 챙기고 다니면 다른 사람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시간 할애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슬로바키아 내에서는 ISIC카드와 거주허가증이 있으면 슬로바키아 내 기차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발권해준다. 이 건 팁이다. 이 카드로 슬로바키아 여행을 해도 좋다.
교통	보통 버스와 트램으로 이루어져있다. 버스와 트램은 새벽 5시정도부터 시작하여 밤 10시정도까지 있고, 버스는 나이트버스가 있어서 밤새 운영한다. 물론 배차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정도이다. 교통은 마냥 불편하진 않았다.
날씨	동유럽 국가이며, 내륙이라서 바다가 곁에 없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 건조하다. 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오는 편이며, 유럽인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않으니 그냥 우산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.. 우산이 필요하면 마트가면 판다. 겨울에는 많이 춥지만 여름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원한 편인 것 같다.
해외인턴	경험 없음
추신	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.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습득해가야하며, 자질구레한 돈과 시간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준비해가야한다는 것이다. 따라서 거주허가증에 필요한 서류도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묻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, 입학 허가에 필요한 증서들도 마찬가지로이다. 그리고 살

	면서 여러 팀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녀온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. 그러므로 나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바란다.
보완점	KIT와 STU 사이에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. 서로 연락부터가 잘 안되고 관련된 정보도 너무 적은 것 같다. 슬로바키아가 작은 나라인 건 분명하지만, 대사관 측에서도 우리와 같은 교환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른다. 오히려 우리가 정보를 다 찾아서 대사관에 알려준 꼴이었다.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너무 아쉬웠다.